



우즈베키스탄

안디잔市 유혈사태 현황과 향후 전망

지난 5월 10일 우즈베키스탄 동부지역 주요 도시인 안디잔(Andijan)에서 시작된 평화시위가 12일 밤에는 시위대에 의한 안디잔 교도소 점거와 재소자 수천 명의 탈주 및 시위 가담으로 이어지면서 심각한 소요 사태로 발전하였다. 애초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시위대와 협상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했으나,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정부 보안군이 투입되어 무력진압에 나서면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유혈사태로 번지게 되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공식적으로 169명이 사망했으며, 정부군에 의한 고의적인 사망자는 없다고 밝혔으나, 많은 서방언론들은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사망자만도 500명이 넘고 부상자는 수천 명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정부군의 무력진압으로 사태는 일단 종결되었고, 다소간의 시위 확산의 여진이 있었으나 우즈베키스탄 정국은 일단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구소련 공화국

들의 잇따른 독재정권 붕괴 시점에서 이번 사태가 발생함으로써 우즈베키스탄 정국의 앞날과 관련하여 미묘한 과장이 일고 있다.

유혈사태의 배경

지난 5월 14일에는 정부 보안군의 무력진압 이후에도 안디잔의 중심광장에서는 간헐적 시위가 이어졌고, 키르기스스탄 접경의 카라수(Karra-suu)市에서까지 시위군중들에 의한 시청사 건물 점거 및 일부 관리들 구금 등으로 사태확산이 우려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더 이상의 사태확산 조짐은 아직 없으며, 우즈베키스탄 정국은 평온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유혈사태 발생 이후 영국, EU를 비롯한 서방세계의 강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고 UN은 이번 사태의 실사를 요구하고 있으나,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지난해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안디잔 지역 경제인 23명을 헌법 위반과 이슬람 무장단

체 소속 혐의로 체포한 것이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월에는 23명의 재판 회부를 계기로 이 지역 주민들이 종교탄압이란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간헐적인 시위를 벌인 바 있는데, 이번 사태도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진행되던 시위가 과열되면서 이들이 수감되어 있던 교도소 점거와 수천 명의 재소자들이 시위에 가담하면서 사태가 더욱 커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투옥된 23명의 경제인들이 아크라미야(Akramiya)라는 불법 이슬람단체의 조직원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서방 언론들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주장과 달리 이 단체는 단순한 지역 자율경제단체로 보고 있다.

직접적인 사태원인은 지역의 경제유지들의 체포에 대한 반감이었으나, 근원적인 이유는 이 지역의 경제적 빈곤에 대한 쌓인 불만이 폭발한 것이란 분석이 많은 공감함을 얻고 있다. 특히, 안디잔이 위치하고 있는 페르가나(Fergana) 계곡지역은 정부로부터 이슬람 과격단체와의 연계 혐의로 지속적인 탄압을 받아 왔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 사정이 더욱 악화되어 왔고 그럴수록 정부에 대한 반감도 커져 왔다.

카리모프 대통령, 이번 사태에 민감하게 반응

이번 사태가 폭력사태로 번진 직후인 13일 오전 카리모프 대통령이 직접 안디잔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사태를 지휘하였다는 것은

카리모프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반증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 지난 5월 17일 오후 현지 외교단 및 언론을 위한 카디로프(Kadirov) 검찰총장의 기자회견장에 카리모프 대통령이 예고 없이 나타나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벌이기도 하였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번 사태가 이슬람 과격단체가 정부 전복 및 이슬람 국가건설이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도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카리모프 대통령은 서방 기자들에게 서방 언론들의 사망자 숫자 보도에 대한 근거를 따지는 등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서방세계의 시각에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노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

카리모프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연이어 구소연방 국가에서 독재정권이 붕괴되고 있는 데다, 국내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등 우즈베키스탄을 둘러싼 정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카리모프 정권의 강력한 언론통제와 강경한 시위진압에도 불구하고 ‘카리모프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도 카리모프 대통령을 크게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반정부 시위 늘어나

지난해 말에는 재래시장 상거래를 억제하는 법제정에 반발하는 도시지역 중소상공인들에 의한 시위가 수 차례 있었으며, 그때마다 보안군에 의한 강경 진압과 인권탄

1) 수출입은행 우즈베키스탄 주재원 보고자료(2005. 5. 18).

압이 뒤따랐다. 또한, 금년 3월말 지자흐(Jizzakh) 지역에서는 토지몰수에 반발하는 농민시위가 발생하였으며, 5월초에는 카시카다랴(Kashkadarya) 지역의 토지몰수에 반발한 농민들이 수도인 타시켄트의 미국 대사관 근처 천막촌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크고 작은 시위가 빈발하고 있는데, 카리모프 정권은 이와 같은 시위의 배경에 과격 이슬람 무장단체가 연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소요사태의 강경진압과 강력한 언론탄압으로 일관해 왔다. 그 결과 현재 투옥된 인권관련 사범만도 6천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국내외 과격 이슬람단체와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각종 테러활동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서방의 관측통들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주장과 달리 많은 시위는 정치·종교적인 이유보다는 경제적 동기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카리모프 정권의 실정이 계속되는 한 심각한 경제적 궁핍에 대한 반발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 민주화 도미노 재현 가능성 낮은 듯

2003년 11월 그루지아, 2004년 12월 우크라이나에 이어 금년 3월에는 바로 인접한 키르기즈스탄에서 시민혁명으로 장기 독재 정권이 실각함에 따라 이번 우즈베키스탄의 유흔사태도 또 다른 시민혁명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모아졌다.²⁾ 그러나

국내 여건과 국제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즈베키스탄에서 시민혁명에 의한 정권 붕괴 가능성이 아직은 크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우즈베키스탄의 정치여건은 앞서 시민혁명이 일어난 3국에 비해 훨씬 열악하고 원시적이다. 그루지아와 우크라이나는 각각 사카시빌리(M. Saakashvili)와 유시첸코(V. Yushchenko)라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닌 야당지도자를 주축으로 보다 조직화된 반정부 성향의 학생과 지식인 계층이 혁명을 주도하였다. 또, 키르기즈스탄의 경우 우즈베키스탄에 비해 덜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 다소 우발적인 시민봉기로 정권교체가 일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은 카리모프 정권에 맞설 조직적인 대항세력이 극히 취약하며, 군중들의 조직적인 저항도 상당히 제약받고 있는 등 아직은 국내 민주화 역량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우즈베키스탄을 둘러싼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카리모프 정권의 붕괴를 별로 반기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세 강대국들은 공통적으로 카리모프 정권이 붕괴될 경우, 극단적인 이슬람정권의 출현이나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이슬람 세력의 활동공간이 넓어지는 것을 원치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러시아와 중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카리모프 정권을 지지하고 있다. 다만, 미국 정부는 국내외 여론을 의식하여 카리모프 정권의 인권탄압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아프간에서의 대 테러전쟁

2) 그루지아는 '장미혁명', 우크라이나는 '오렌지혁명', 키르기즈스탄은 '레몬혁명' 등으로 불리고 있음.

수행을 위해 카리모프의 협력이 절실하여 강력한 비판은 자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경제개발을 위해 친서방적인 태도를 보였던 카리모프는 자신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다시 친 러시아 성향으로 외교정책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정치상황 불투명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카리모프 체제는 여전히 건재하나 카리모프의 강력한 지도력이 상당한 상처를 입은 것도 부인할 수 없으며, 낙후된 정치체제와 경제실정에서 비롯된 국민들의 좌절감과 불만이 쉽게 해소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카리모프 정권의 강력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반정부 소요가 계속되고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들의 반발 강도도 더욱 커질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반정부 소요가 계속될 경우 끊임없는 강경대응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며, 이 경우 시민혁명에 의한 정권교체보다는 집권세력 내의 지도력 교체 시도가 나타날 것이란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즉, 현재 사마르칸트 파벌과 타시켄트 파벌로 구성된 집권세력 내 기득권 유지를 위한 다툼 과정에서 정권의 교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카리모프란 절대적 카리스마에 가려 야당은 물론 집권세력 내에도 정치대안이 부재한 가운데, 격렬한 소요로 인한 체제 붕괴는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정치개혁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이합집산의 반복과 혼란을 장기화시킬 가능성도 없지 않다.

【고 재 호】